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48호 / 08월 12일

금년 상반기 중국 도시주민소득 8.4% 증가

1. 개요

- 중국 국가통계국 도시조사팀 발표에 의하면, 금년 상반기 35개 중·대형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평균 4,301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.0% 증가했으며, 물가 요소를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8.4%를 시현함.
-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인당 임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0.6% 증가한 3,254.4元으로, 임금소득 증가액이 전체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89.1%를 차지함.
- 1인당 임금소득 증가의 주요인은 ▶베이징(北京), 산시(山西), 내이멍구(內蒙古), 저장(浙江), 광둥(廣東), 후난(湖南) 등 일부 省·市の 보조정책 실시, ▶2001년 이래 국가차원에서 두차례의 임금인상 조치 단행, ▶사스 기간 동안 임금체납 행위 단속, 일부 특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득보호조치 실시, ▶사회보장조치의 점진적인 정착 등에 있음.
- 금년 상반기 1인당 轉移性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.1% 증가한 1,058元이며, 그 중 사회구제소득 및 실업보험금이 각각 45.2%, 39.9%를 차지함.

2. 도시별 소득순위 비교

□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본 도시별 주민소득 순위에서는 선전(深圳)이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, 이어서 광저우(廣州), 상하이(上海), Ningbo(寧波), 베이징(北京), 항저우(杭州), 샤먼(廈門), 지난(濟南), 장사(長沙), 푸저우(福州) 등이 10위권에 속함.

- 선전시의 금년 상반기 1인당 가처분소득은 12,373.4元으로, 2위인 광저우시(7,781.4元)보다 4,592元이나 많으며, 국가통계국은 이러한 추세가 금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

- 선전시의 주민소득이 높은 이유는, 첫째, 경제기반이 우수해 최근 다소 둔화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민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, 둘째, 선전시가 福利의 貨幣化제도개혁¹⁾을 술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화폐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.

□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도시는 중소도시로서는 유일하게 5위권내에 포함된 Ningbo(寧波)시로(4위), Ningbo시의 주민소득은 베이징, 충칭(重慶) 등 대도시를 앞서고 있음.

- Ningbo시의 소득증가는 지난 1~2년간 베이징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, 금년 상반기 Ningbo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7,172元으로 3위인 상해(7,416.1元)와의 격차가 300元에 불과함.

- Ningbo시의 높은 주민소득은 크게 확대된 개인 경영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. Ningbo시 통계국에 의하면, 2002년 Ningbo시의 21만여 개 공·상업자 가운데 54,352개가 개인 및 사영기업이며, 이들의 생산총액(1,258억 元)은 Ningbo시 GDP의 약 90%에 해당함.

1) 福利의 貨幣化제도 개혁이란 주택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개혁 실시, 간부관료에 대한 매월 차량 보조비 지급 등, 각종 복지혜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시킨 조치를 지칭함.

<표-1> 2003년 상반기 35개 中·大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

(단위 : 元)

순위	도 시 명	1인당 가처분소득	순위	도 시 명	1인당 가처분소득
1	深 圳	12,373.43	19	鄭 州	4,237.43
2	廣 州	7,781.42	20	昆 明	4,174.90
3	上 海	7,416.07	21	烏魯木齊	4,163.58
4	寧 波	7,172.01	22	重 慶	4,081.96
5	北 京	7,039.66	23	太 原	4,076.37
6	杭 州	6,836.65	24	貴 陽	4,056.91
7	厦 門	6,688.23	25	西 安	3,963.25
8	濟 南	5,497.17	26	合 肥	3,957.70
9	長 沙	5,298.15	27	沈 陽	3,950.03
10	福 州	5,264.63	28	長 春	3,946.94
11	南 京	5,131.25	29	呼和浩特	3,932.79
12	青 島	4,974.11	30	哈 爾 濱	3,908.83
13	天 津	4,969.17	31	南 昌	3,835.28
14	南 寧	4,896.23	32	石 家 庄	3,738.11
15	大 連	4,598.40	33	銀 川	3,620.16
16	海 口	4,441.06	34	西 寧	3,542.06
17	成 都	4,426.86	35	蘭 州	3,420.54
18	武 漢	4,399.37		拉 薩	-

자료 : 국가통계국.

3. 도시주민 소득 분포의 특징 및 요인분석

□ 도시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15위권 내에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동·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, 서부지역과의 격차가 심각함.

- 전국 1위인 선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위 란저우(蘭州)보다 8,953元이나 높게 나타남.
- 특히 上海市(7,416元), 北京市(7,040元), 浙江省(6,945元), 廣東省(6,499元), 福建省(5,257元) 등 1인당 가처분소득이 5,000元을 초과하는 省·市 모두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.

- 중부 및 동부지역의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9.9%와 9.4%로 전국 평균증가율(9.0%)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, 서부지역은 6.1% 증가에 그침.

□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중형(中型) 도시들의 주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, 일부 중형 도시들의 주민소득 수준은 직할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그것에 앞서고 있음.

- 4위를 차지한 Ningbo를 비롯하여 Hangzhou(항저우, 6위), Xiamen(샤먼, 7위), Qingdao(칭따오, 12위)가 직할시인 Chongqing(충칭, 22위)보다 높은 15위권 내에 있는바,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동남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어, 주민소득과 해당지역 경제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이들 도시가 전통적인 공업단지 중심의 대도시와는 달리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함.

- 특히 항저우, 칭따오 등은 사영개체경제 또는 합작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, 기업의 장기부채 비율도 낮음.
- 반면, 하얼빈(哈爾濱)과 선양(沈陽)을 비롯한 중공업중심 도시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업부담이 오히려 가중됨으로써 주민소득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□ 한편, Ningbo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경영 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, 금년 상반기 도시주민의 가정경영 순소득은 197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2% 증가함.

- 가정경영 순소득의 급속한 증가는 개인 경영활동 종사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, 금년 상반기 중국 도시주민 가정에서 국유경제단위와 도시 집체경제단위 근로자의 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.9%와 8.3% 감소한 반면, 도시 개인경영자의 수는 同 10% 증가함.(***)